

**러시아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보제들,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전(全) 루시의 키릴 총대주교 부활절 서신**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거룩한 주교님들, 존경하는 신부님들과 보제님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저는 많은 나라들에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정교 그리스도인 여러분께 영적 기쁨에 찬 마음으로 거룩한 부활절을 축하드리며 오랜 전통에 따라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인사말로써 거룩한 교회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2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인사말 속에 우리 신앙의 불꽃과 사랑의 힘, 희망의 기반, 교회의 초석, 세상을 향한 신약 메시지의 논지, 꺼지지 않고 우리를 밝혀주는 빛과 영감(靈感)의 원천,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과 우리의 모든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하기 쉽고 갈수록 혼란해지며 모순들로 인하여 분열되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운명을 엄습하든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에 관한 부활절의 기쁨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선포합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대축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또 어떻게 지상에 내려 오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필리피 2:7), 고난을 견디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21세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하여 거두신 승리의 진정한 참여자이자 계승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교회는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에게서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지옥을 이기셨으니, 아담과 하와는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죽음은 죽음에 처해졌으며, 우리는 생명을 얻었음”(찬양시편에 딸린 제2조 주일 성모송)을 증언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죽음과 부패의 공포로부터 구하시며, 영적·육적 질병들을 치료하시며,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에 지지해 주시며, 슬프고 우울한 순간에 위로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묵시록 21:4)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따라 걸도록 도와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희생과 영광스러운 부활로써 속량의 업적을 완수하시면서 모든 이에게 낙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로운 삶과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은총의 능력을 내려 주시는 참 하느님이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 모실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세르비아의 성 니콜라오스는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삶이 죽음보다 강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선이 악보다 강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희망이 옳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음을 뜻합니다.”(선과 악에 관한 단상) 그리고 이 부활절의 기쁨, 하느님과 친교를 맺으며 “새로운 삶”(로마 6:4)을 확인하는 기쁨은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선하고 공정한 일을 시작하게 하고, 사랑과 자애의 행위를 하도록 고무하며,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돕고, 시련 가운데 위로하며, 좌절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이 약한 이들을 굳세게 해 줍니다.

찬란한 파스카 대축일에 우리는 하느님께 특히 교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내란의 불길에 마음이 타버린 우리 형제자매들의 재난과 상실에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육신의 상처와 더 나아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드네프르 강의 한 세례조에서 나온 형제 민족들에게  
공고하고 공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그분께 더욱 열렬하게 기도 드립니다.

구세주의 지상 생애가 노고와 사람들에 대한 희생적 사랑으로 충만하였듯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이웃에게 봉사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과연 모든 덕행, 심지어  
가장 작은 덕행과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 자신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생명과  
불멸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드는데, 즉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부활하셨고, 당신의 거짓 없는 약속에 따라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마태오  
28:20)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죄짓고 병들었으나 의로움에 목마르고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도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마태오 25:34) 하늘나라에서  
“성인들과 함께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다스리도록”(메디올라눔의 성  
암브로시오스의 성가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지상 생애를 마칠 때 천상의  
복된 삶을 물려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1코린토 15:28) 때 도래할 사랑의 왕국을 고대하는 이 기쁨을 교회는 언제나  
선포하며, 더욱이 광명의 부활절 축제 시기에 선포합니다.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1코린토 5:8) 축제를 지내자는 사도 바오로의 말을 통하여 교회가 우리를  
부르는 구원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가까운 이들과  
낯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고, 모든 영광과 영예와 경배가 영원히  
그분께 마땅함을 증언하면서 하느님의 계명과 복음의 정의로운 말씀, 선행으로 살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노력합니다.

##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

2023년

그리스도  
부활 대축일